

첨부 1. 세부 복명사항

## 출장복명서

- 중국(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 -

2008. 1

유광흠 연구위원

차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원

# I. 출장개요

## 1. 출장목적

- 도시건축 정책 및 공공공간 개선 선진사례 조사
- 도시건축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도시건축전시관 사례 조사

## 2. 출장기간

- 출장기간 : 2007. 12. 24(월) - 2008. 1. 2(수) 10일간

## 3. 출장자 : 총3인

- 유광흠 연구위원
- 차주영 부연구위원
- 성은영 연구원

## 4. 출장 일정

일 자	지역	일 정
12월24일 (월)	인천 → 베이징	-인천출발 (9:25) -베이징 도착(10:35) -천안문일대 북경 시내 답사
12월25일 (화)	베이징→ 상하이	-북경시청 도시계획국(10:00) -북경도시계획전시관(13:30) -중국국가박물관, 중국혁명박물관 답사 -베이징출발(18:55), 상하이 도착(21:00)

12월26일 (수)	상하이	-상하이도시계획전시관(10:00) -상하이 박물관, 인민광장 -와이탄 역사건축물 답사
12월27일 (목)	상하이	-푸둥지구 답사 -상하이 출발(16:00), 싱가포르 도착(20:50)
12월28일 (금)	싱가포르	-URA 방문(10:00) -시티갤러리 -시티홀&마리나 에어리어 도시개발 사례 답사
12월29일 (토)	싱가포르→ 칼라룸푸르	-싱가포르 출발(06:45), 칼라룸푸르 도착(07:45) -푸트라자야관리청 방문 및 관련자료 수집
12월30일 (일)	푸트라자야→ 싱가포르	-푸트라자야 도시개발 및 정책사례조사 -칼라룸푸르 출발(19:30), 싱가포르 도착(20:25)
12월31일 (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아시아 문명 박물관 엠프레스 플레이스 답사 -The marina bay singapore countdown 07/08 행사 참가
1월1일 (화)	싱가포르	-센토사 섬 및 하버프론트 공공건축디자인 답사
1월2일 (수)	싱가포르→ 인천	-싱가포르 출발(1:30), 인천 도착(8:35)



## II. 출장 세부 내용

### 1. 방문 기관 및 회의 내용

#### 1)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 □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4일 16:00
- 장소 :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인
  - 왕예준(Wang Yajun\_senior planner, deputy chief planner)외 1인(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회의 내용

- 북경시 도시계획국의 산하의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공식적인 계획 부분을 담당하는 권위있는 도시계획 연구기관(중국유일의 정부지원 도시계획연구소)
- 북경시 정부의 도시개발 및 다양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정책적, 계획적 방향을 결정
- 계획, 시설, 교통의 세 부분의 7개 부서로 구성(도시기본계획부, 상세계획부, 도시설계부, 교통계획부, 기반시설계획부, 정보화센터, 건축설계부)





## 2) Beijing Planning Exhibition Hall

### □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5일 10:00
- 장소 : 북경시규획전시관 회의실
- 참석자 : 6인
  - 시아오 핑(Xiao Ping\_마케팅팀장), 다시 후(Darcy Hu\_영어전문원),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회의 내용

- 2003년에 설립된 북경시 도시계획국 소속의 도시계획전시관
- 초기에는 2008년 북경올림픽 홍보를 위한 건설전시관으로 기획되었으나, 북경의 도시계획역사와 그에 대한 보존과 개발 등에 대한 전시부분을 추가, 규모 확대
- 전시, 기획, 교육, 아카이브 등의 기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교류 업무를 통해 건립 및 운영효과 극대화





### 3) 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 □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5일 14:00
- 장소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5인
  - 쑤 관셹(Xu Quansheng\_제4분소장, 선전지점장), 쑤 덩쥔(Zhou Dingqing),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회의 내용

- 1949년 설립된 2,200명 규모의 국가건축설계 및 컨설팅 전문기관
- 10개의 설계부와 20여개의 건축가설계스튜디오, 5개의 지역사무실, 그리고 다수의 자회사들로 구성
- 북경서부역사\_beijing west railway station, 북경국제파이낸스빌딩\_beijing inter- national financial building, 북경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_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2, 2008 북경을  
림픽 주요건축물 등 대규모 중요건물설계





#### 4)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 2000년 “도시city, 사람man, 환경environment, 개발development”를 테마로 개관
- 2005년 규모의 확대후 새로운 이미지로 재개관한 이래 1999~2020년 상해도시계획 청사진을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전시

#### 5)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8일 10:00
- 장소 : URA 회의실
- 참석자 : 8인
  - Zukiflee Mohd Zaki(보존 및 도시설계부 팀장), Tan Sze Hui Elaine 외 1인 ,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회의 내용

- 싱가포르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담당조직
- Concept Plan, Master Plan, Identity Plan 등의 계획 수립 및 Marina bay 지역개발, 정부토지매각프로그램의 운영 등 도시계획 및 개발 전반에 관여
- 1991년부터 city gallery를 운영





## 2. 도시 답사 사진

### 1) 베이징

	
천안문 광장	사해 지구(전통특화 도심재생사례)
	
북경성시규획전시관	북경성시규획전시관_전시실 입구
	
북경성시규획전시관_북경시전도	북경성시규획전시관_북경시 모형전시
	
북경성시규획전시관_2008올림픽전시	북경성시규획전시관_수영경기장 모형



## 2) 상하이

	
<p>상해성시규획전시관</p>	<p>상해성시규획전시관</p>
	
<p>상해성시규획전시관_도시모형</p>	<p>상해성시규획전시관_전자책 전시</p>
	
<p>신테인지지구_특화상업지구 도심재생사례</p>	<p>대한민국 임시청사</p>
	
<p>푸둥지구</p>	<p>와이탄 역사박물관</p>



### 3) 싱가포르

	
URA_로비 전경	URA_모형제작실
	
URA_city gallery	city gallery_전시패널
	
city gallery_전시를 통한 체험학습	city gallery_도시모형
	
city gallery_conservation 전시	city gallery_패널전시 형태



	
<p>city gallery_전시패널</p>	<p>city gallery_전시패널</p>
	
<p>city gallery_도시모형</p>	<p>city gallery_전시패널</p>
	
<p>city gallery</p>	<p>city gallery</p>
	
<p>ginger garden</p>	<p>광장 디자인</p>



#### 4) 푸트라자야

	
<p>모스크</p>	<p>마리나 요트경기장</p>
	
<p>푸트라자야 진입로</p>	<p>컨벤션 센터</p>
	
<p>정부청사</p>	<p>주거단지</p>
	
<p>정부청사</p>	<p>술탄 관저</p>



## □ 일반현황

- 푸트라자야(Putrajaya)는 말레이시아의 초대수상인 'Almarhum Tunku Abdul Rahman Putra AlHaj'에서의 'Putra'와 성공을 의미하는 'Jaya'의 합성어
- 면적 : 49.31km<sup>2</sup>
- 계획인구 : 32만명
- 푸트라자야 호수는 도시를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핵심지역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함께 정부와 기업체가 있으며, 주거지역이 주변지역을 이루고 있음

## □ 도시 건설 배경

- 말레이시아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Multimedia Super Corridor)의 일환으로 시작
- 1991년 2월 마하티르 수상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비전2020'을 제시
  -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퇴 행정, 사법부를 새로 건설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
  - 한계에 달한 쿠알라룸푸르의 기반시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건물 부족을 해소하며, 정부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행정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함
- '비전2020'을 완수할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용하기엔 현 수도인 쿠알라룸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쿠알라룸프 시티센터와 쿠알라룸프국제공항을 있는 MSC내에 연방정부의 행정 기능을 이전하기로 결정
-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으로 1995년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짓고 행정수도로 확정한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이전과정

- 1993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이전결정
- 1994년 다섯 개의 이전 안이 정부에 제출
- 1994년 4월 "Garden City" 컨셉이 채택
- 1995년 2월 푸트라자야 마스터 플랜 승인(내각)
- 1995년 8월 푸트라자야 프로젝트 공식선언
- 1996년 10월 착공
- 2006년 9월 현재 75% 공정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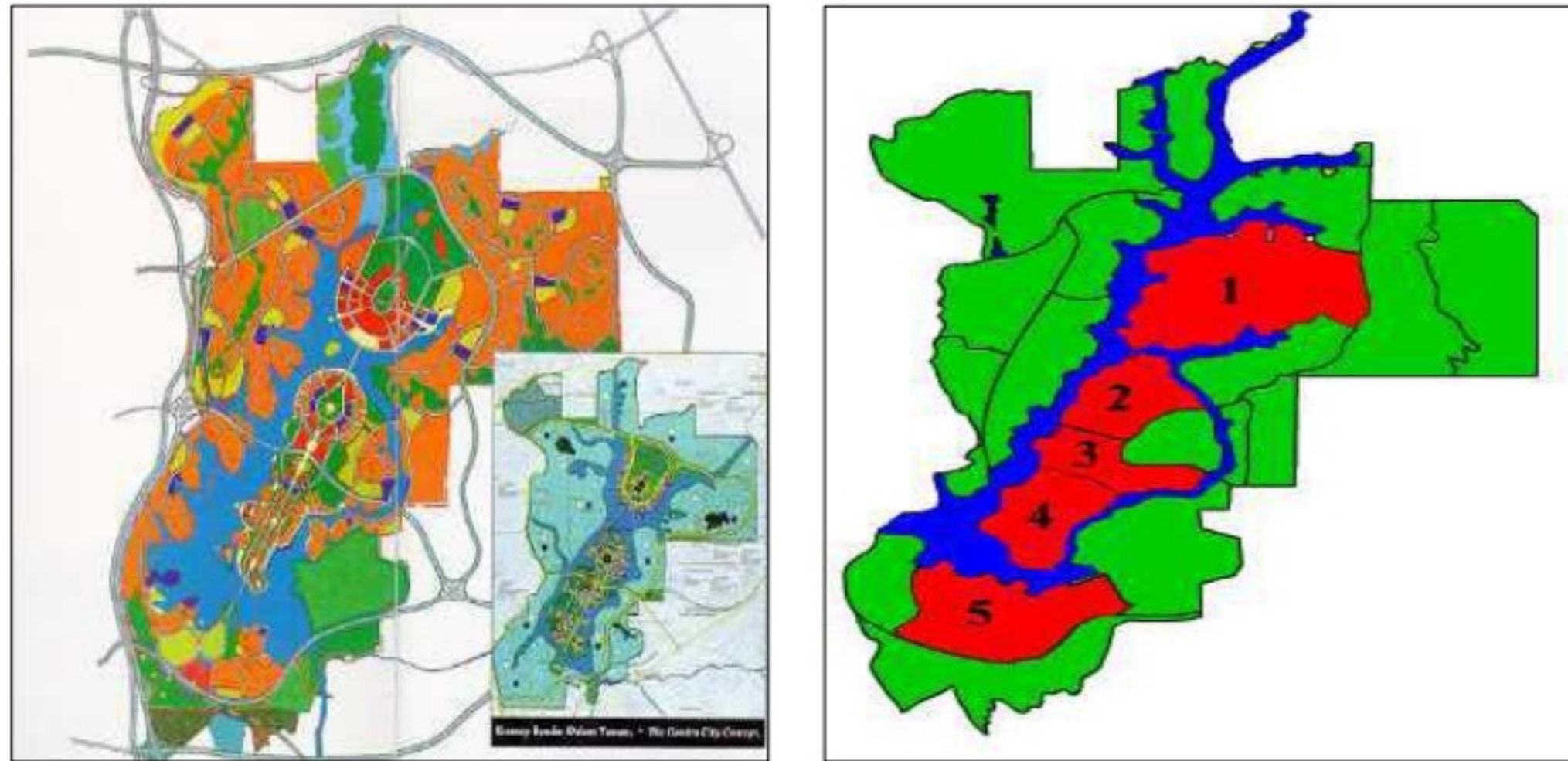
□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 녹지 Open Space에 많은 면적을 할애
- 인공 호수를 도시내에 건설
- 호수건설을 통한 38%의 수변공간의 건설
- 20개(precinct)구역으로 구획
- 전통적 컨셉에 기초하여 커뮤니티를 형성
- 도시의 중심축으로 4.2Km 대로 형성

□ 개발계획

- 푸트라자야는 호수를 기준으로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어짐
- 핵심지역은 전체면적 10.69km<sup>2</sup>로서 4.2km에 달하는 대로(boulevard)로 연결된 다섯 개의 구역(precinct)으로 나누어짐





푸트라자야 마스터 플랜과 핵심구역

○ 제1구역(정부청사중심구역)

- 제1구역은 핵심지역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방총리관저와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음
- 제1구역은 호수에 둘러싸인 반도로서 서쪽과 동쪽으로 호수가 접하고 있음
- 모든 정부기관 및 시설은 각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주변의 녹지대와 호수는 푸트라자야를 상징하는 정원도시(City in a Garden)의 특징을 대표함
- 정부청사는 A, B, C, D, E 구역에 각각 위치하도록 함
- A구역에는 마하티르 총리관저가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초록색의 6개 돔이 이색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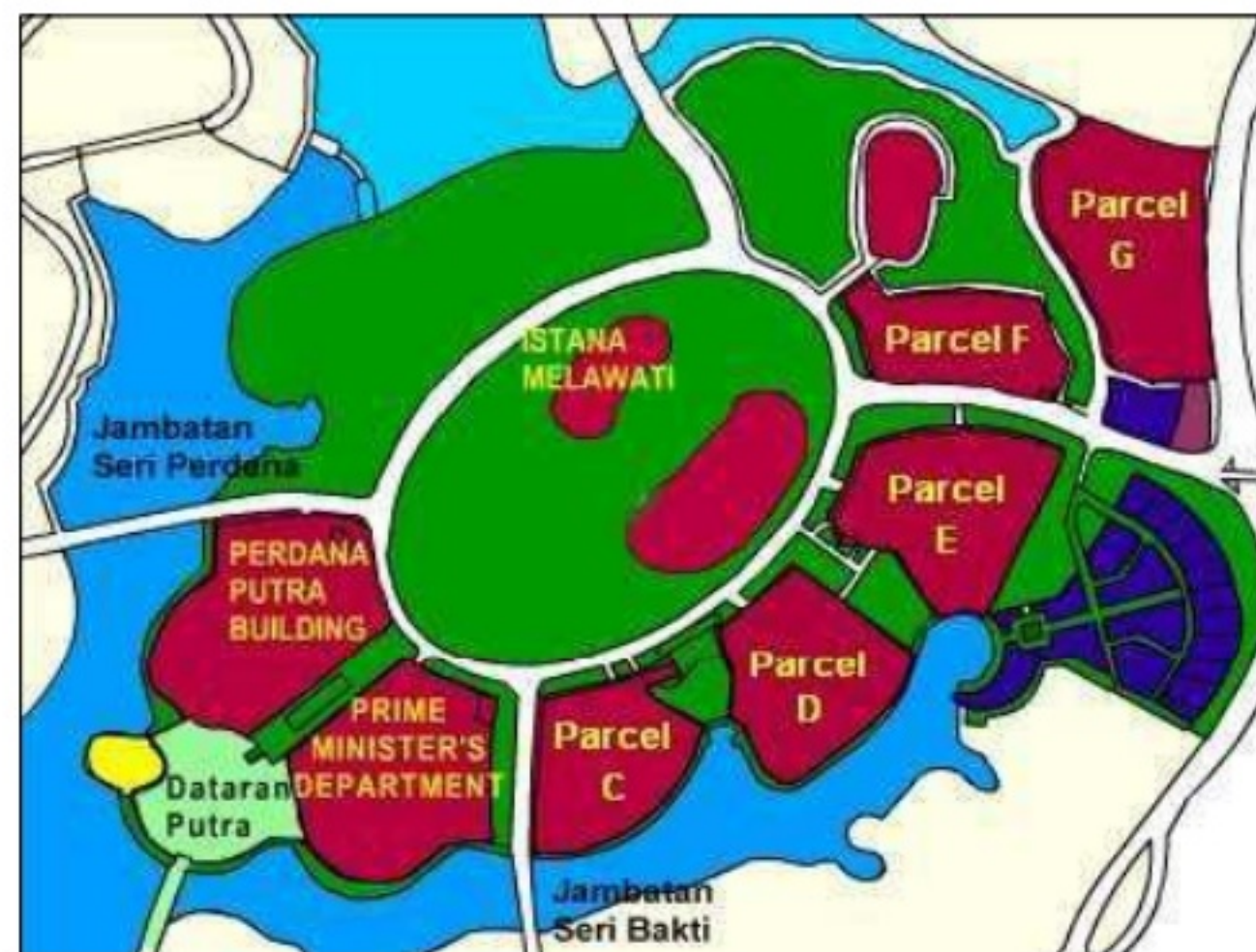


- B구역은 8개의 세부구역으로 구분되고, 총리부의 주요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주요 행정기관은 행정부, 개발부, 국민고충위, 사법부 등이



위치)

- C구역은 환경부, 선거관리위원회, 과학기술부, 통계청 등이 위치하고 있음
- D구역은 총면적 38.3에이커로 총 10개의 세부구역으로 나뉘어지고, 모든 세부구역이 광장을 포함하고 있음(주요 행정기관은 부패방지위, 농림부, 교통부, 재정부 등이 위치)
- E구역은 주로 5개의 부처가 위치하고 있음(교육부, 자원통신부, 보건부, 주택부,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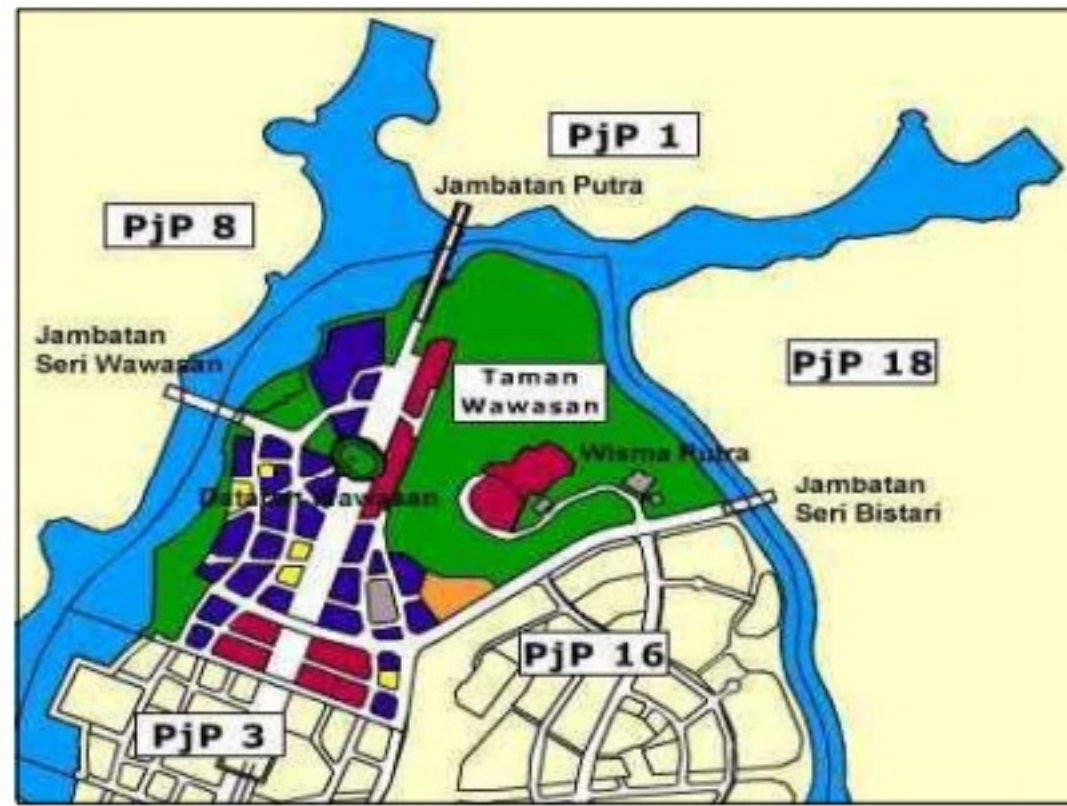


제1구역 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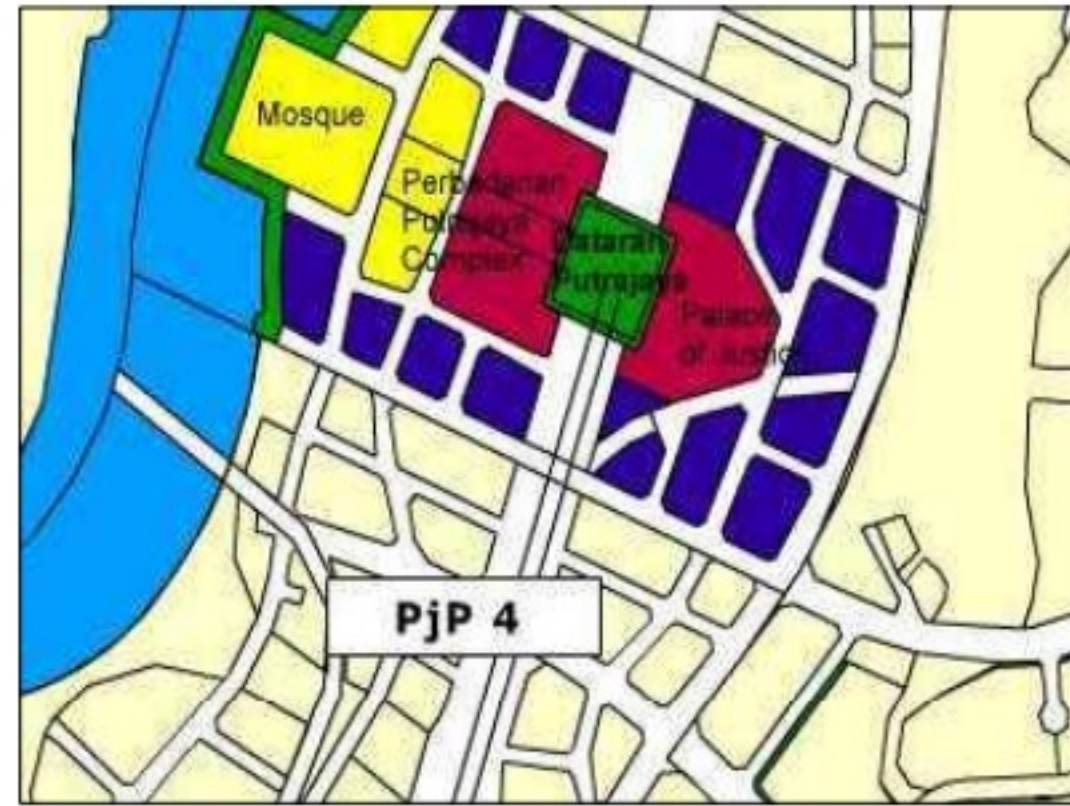
○ 제2구역(상업중심구역)

- 제2구역은 푸트라자야 핵심구역으로 북쪽의 관문을 형성하면서, 상업시설, 정부청사, 공원, 녹지 및 주거지역으로 구성됨
- 총면적 155.2에이커로서 거주민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예정
- 주요 행정기관으로는 재무부와 외무부가 위치하고 있음





제2구역 개발계획



제3구역 개발계획

○ 제3구역(시민문화중심구역)

- 제3구역은 예술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주택과, 상업 및 공공시설을 배치
- 도시의 문화적 지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전과 문화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 시민문화중심구역은 푸트라자야 대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전체 140헥타르 중 47%가 녹지와 공공용지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대사원(Grand Mosque), 사법부와 법원이 위치

○ 제4구역(복합개발중심구역)

- 제4구역은 푸트라자야의 중심상업 및 업무구역으로서 고밀개발 될 예정
- 핵심구역의 남쪽 끝에 위치하는 제4구역은 전체면적이 대략 213헥타르이고, 전체면적 중 45%는 녹지로 조성될 계획
- 구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상업시설이 대로(Boulevard) 주변 동쪽에서 서쪽까지 상업구역내에 위치할 예정





제4구역 개발계획



제5구역 개발계획

- 제5구역(운동휴양중심구역)
  - 제5구역은 푸트라자야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중심구역 중 두번째로 큰 구역으로서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스포츠 및 휴양시설로 구성
  - 전체면적은 330헥타르에 달하고, 레저활동을 위해 조성된 구역으로서 핵심구역과 주변지역 사이의 연결기능을 수행
  - 주요시설로는 전시장, 테마공원, 복합스포츠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



## 부록. 면담 회의록

### 1.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 ☐ 방문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4일 16:00
- 장소 :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6인
  - 왕예준(Wang Yajun\_senior planner, deputy chief planner)외 1인(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주요내용

- 북경시성시규획연구소의 조직 및 연구영역
- 중국 및 북경시의 도시계획 체계

#### ☐ 회의록

<왕예준> 저희 연구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유광흠> 저희연구소는 신생 건축분야 국책연구소로서 세계유수의 비슷한 연구소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왔다. 많은 정보는 없다.

<왕예준> 먼저 북경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릴까요? 시작하기 전에 저녁 스케줄 물어봐도 될까?

<차주영> 이 방문일정 후의 일정은 조정가능하다.

<왕예준> 잘되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연구소는 계획, 시설, 교통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함께 계신 이분



은 계획 담당자이다. 또, 우리 연구소는 북경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1986년에 정부기관에서 독립하였다. 지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240명이고, 7개 부서가 있다. 기본계획부서, 상세계획 부서, 도시계획 부서, 도시시설 부서, 교통 부서, 정보화센터, 건축설계 부서이다. 그런데, 건축설계는 연구소의 주요 업무는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이다. 우리 연구소 바로 남쪽에 있는 건축연구소가 북경 최대의 건축연구소이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소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소의 주요 임무를 소개해드리겠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우리는 북경시의 master plan을 세웠다. 이것은 북경시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이프로젝트에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하여 앞으로 북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 초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 2년 동안은 연구소의 업무가 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의 중심부에 대한 심화세부계획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심지의 경우 신규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도 인구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축이 생기고 있다. 그 외에도 교외지역에 11개의 위성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개는 계획인구 70-90만 명 정도의 대규모이다.

<차주영> 그렇다면 11개 도시의 인구가 총 1000만 정도는 될 것을 예상하는가?

<왕예준> 나머지 8개 도시는 15만명에서 20만 명, 혹은 50만 명인 도시도 있다. 다 합해서 57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지리적 특성이 달라서 일부지역에서는 교통도 발달하고 인구도 증가할 것이지만 일부는 농촌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인 옛 도시지역의 복원,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서울시정개발연구소(sdi)와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했다. 북경의 옛 도시 성 안팎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



다음은 북경의 농촌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 북경에는 산악지역도 많이 있고 300만 명의 농민과 4000여 개의 시골지역이 있다. 중국중앙정부가 이런 산악지역의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농촌 문제 해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농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지형지도 그리고 계획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이 연구소의 주요한 임무이다. 이밖에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다. 이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경은 자금성 1개의 중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개의 중심지역이 생겨났고 이런 중심부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양구의 CBD 프로젝트에서는 설계공모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였고 우리도 다양한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통합하여 의견을 내었다. CBD의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또 하나의 주요 지역은 IT 중심지역인 중권충으로 이지역의 금융거리의 설계 디자인도 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표연구기관으로서 이런 공사과정에 참여하였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너무 복잡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에 참여하진 못한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했던 11개의 위성도시의 도시설계도 하고 있다. 내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하여 11개 위성도시설계프로젝트들은 이미 마무리되었다. 공정기간은 빨라졌지만 오류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차주영> 친절하고 자세한 소개 감사하다. 하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가장 크게 궁금한 것부터 여쭙 보겠다.

그동안 우리가 유럽이나 서양의 도시나 일본 쪽의 도시계획 구조는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 같은 동양권인 중국은 아직도 생소하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었다. 같은 동양권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여건이 비슷하여 더욱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크게 나누면 연구소와 계획의 체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먼저 연구소의 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국가 연구소와 지역연구소, 학계가 협력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중국도 그런지 알고 싶다.



<왕예준> 중국도 비슷하다. 중국에는 성시규획연구소이라는 연구소가 도시마다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는 여기 한 곳 밖에 없다.

<차주영> 도시계획을 하는 연구소가 도시마다 다 있다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는 이 연구소가 유일하다는 이야기인가?

<왕예준> 그렇다. 다른 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지원하지만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또 본 연구소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경비는 프로젝트별로 지원 받는다. 북경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뿐 만 아니라 11개의 위성도시에서도 경비를 받고 있다. 11개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중국의 건설부에 속한 연구소나 대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주영> 연구소에서 연구를 제안하는 형태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계획, 연구를 해달라고 업무를 주는 형태인가?

<왕예준> 쉽게 예를 들면, 2005 북경 MASTER PLAN은 우리 연구소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북경규획위원회에서 주재하고 우리는 연구용역형태로 참여하였다. 중국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유광흠> 모든 계획을 정부가 주도하고 이 연구소는 연구용역 형태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인가?

<왕예준> 그렇다.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우린 연구만 한다.

아까 말했던 정책은 북경규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차주영> 북경규획위원회라 함은 Beijing Municipal Commission of Urban Planning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왕예준> 그렇다. 중국계획의 결정체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지방에서 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다. 계획을 바꾸려면 상급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차주영> MASTER PLAN의 계획 체계나 방법, 그리고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왕예준> MASTER PLAN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도시구조 등의 계획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다.

<유광흠> 기본계획후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가?

<왕예준> 각 지방정부에서는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규모를 크게 설계하고 싶어 한다. 인구, 도시공간, 자연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MASTER PLAN이다.

<유광흠> 의사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마스터 플랜 수립후 상세계획,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그런가?

<왕예준> 우리도 마스터 플랜 수립후 구체적인 설계를 한다. 또, 구체적인 설계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광흠> 계획이름이 무엇인가?

<왕예준> regulatory detail planning이다.

<차주영> 법정계획인가?

<왕예준> 그렇다.

<차주영> 3차원 계획인가?

<왕예준> 그렇다. 또, CBD지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하기도 하고 더욱 디테일하게 계획다. 반면 주변지역은 simple하다. 또, construction detail planning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차주영> detail planning은 단지 토지이용만 규제하는 것인가?

<왕예준> 토지이용뿐 만 아니라 높이, 용적률, 건폐율도 규제한다. 용적률은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중요하다. 이격거리 등도 규제한다. 하지만



한 사이트에 토지이용을 한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mix-used로 개발하고 있다.

<차주영> 용도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는지?

<왕예준> 정해져 있지만 비교적 유동적이다.

<차주영>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해져 있지만 꽤 유연하다. 같은 주거지역이라면 도시와 농촌이 같은 규제를 받는가?

<왕예준> 그렇지 않다.

<차주영> 빌딩 용적률은 디테일 플랜에 좌우되는가?

<왕예준> 그렇다. 도시설계 부서에서 CBD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설계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디자인을 하느냐이다. 지방정부 위원회와 연구소 각기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식재, 거리환경 등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은 건설회사에서 한다.

<차주영> 도시설계부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가?

<북경시성시규획연구소 계획설계담당> 그렇다. 북경 CBD 플랜의 경우 5년 전에 2-3년 걸려서 했다. 지금하고 있는 디자인은 5년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오픈스페이스와 건축규제에 대해 강화했다. CBD 설계를 하면서 건축면적 비율하고 건축밀도, 고도, 녹지비율, 그리고 후퇴 거리, 지하시설 연결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유광흠> CBD 외 지역의 건설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왕예준> 우리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

<유광흠> 대외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왕예준>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제협력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

<유광흠> SDI와 연구협력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제안했는가?



<왕예준> 한국 SDI에서 했다. SDI의 동북아수도의 역사문화보존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다.

<유광흠> 보고서를 봤다.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한국에 돌아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찾아 함께 하고 싶다.

<차주영> 건축이나 도시을 하는데 각 분야의 연계는 어떻게 하는가?

<왕예준> 거시적인 설계를 하는데 연구기구, 정부기구 다 참여한다. 최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모두 그런식으로 추진했다. 정부기관 2개와 COMMUNITY, 습지이기 때문에 조경회사, 도시디자인 회사, 우리 연구소도 참석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따로 연구하지만 자주 만나서 회의하여 의사소통을 하여 우리 연구소에서 종합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머지들은 이메일로 교환하자.

<차주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자신있게 소개할 만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있는가?

<왕예준> 북경 북쪽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가보면 되겠다. 수영장, 국가경기장이 있고 거기가면 북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차주영> 북경의 역사보존 프로젝트 중에서는 어떤 곳이 있는가?

<왕예준> 북문 근처에 있는 14해 남나구항에 가보라. 바도 많이 있고, 호수도 있다. 공원도 있다. 어디든지 가서 걸어 갈 수 있다. 북경의 주요 데이트 코스이다.

<차주영> 조명계획도 했나?

<왕예준> 그렇다.

<차주영> 중국은 매우 아름다운 야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명계획도 여기서 했나?

<왕예준> 칭화대학에서 했다.



## 2. 북경 도시건축가 면담

### □ 방문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4일 16:00
- 장소 : 북경 14해 부근 음식점
- 참석자 : 7인
  - 황원명외 2인(독일ISA국제집단),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주요내용

- 중국의 도시 및 건축계획 연구 여건
  - 연구조직의 등급에 따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규모가 정해져 있음
    - A등급은 200만 이상 도시규모
    - 칭화대학교의 연구소는 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까지 연구
  - 연구기능이 주가 되는 연구소들이 있었으나, 요즘은 실무 중심
  -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대학은 연구와 실무를 완전 분리하기 어려움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BIAD)과 북경시성시규획연구원의 역할 및 관계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BIAD)도 북경시성시규획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시에 속해 있지만 북경시성시규획연구소와 직접적인 업무교류는 없음
  - 북경시성시규획연구소는 시 도시계획국소속으로 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북경시성시규획연구소 및 BIAD 모두 처음 설립취지와 달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함.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나온 제안들이 여전히 정책화, 법률화되는 경향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BIAD)는 굉장히 역사깊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로서 중국 건축물의 질을 연구함. 예컨대 주택평면의 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건축법규와 기준을 만드는 연구들도 함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BIAD)은 국제교류업무도 하고 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업무영역과 비슷할 듯함
- 기타
  - 자세한 중국의 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일이나 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3. 북경시규획전시관

#### ☐ 방문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5일 10:00
- 장소 : 북경시규획전시관 회의실
- 참석자 : 6인
  - 시아오 핑(Xiao Ping\_마케팅팀장), 다시 후(Darcy Hu\_영어전문원),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주요내용

- 북경시규획전시관의 간단한 소개
- 설립 경위 및 조직 구성, 업무 분담
- 국제교류협력 현황

#### ☐ 회의록

<유광흠> 연구소 간략 소개

<초평> 팩스를 받고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은 적은 것 같아 방문에 의문스러웠었다. 도시건축박물관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 전시관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겠다.

<유광흠> 언제 설립되었나?

<초평> 2003년 5월에 설립되어 2004년 9월에 공공에 공개되었다. 전체 건설면적은 16,000m<sup>2</sup>이고 이중 상설전시면적은 8,000m<sup>2</sup>, 그리고 기획전시면적은 2,100m<sup>2</sup> 이다.

<유광흠> 평소 관람객은 어느 정도 인가?



<초평> 2004년 개관 이후 120만 명이 방문했다.

<유광흠> 조직 구성과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초평> 베이징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40명의 직원이 있다. 이 중 80명이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부서에서 보안, 청소관리, 그리고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60여명의 직원들은 전시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의 부서로 나누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시관을 운영하는 일상업무(routine work)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들 인원이 앞서 이야기한 전시관 관리업무를 하는 60인이다. 다음으로는 마케팅부가 있는데 그들은 중국여행사와 협력하기도 하고 많은 국제전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업무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시부서로서 전시 운영과 전시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보존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 네 번째는 기술부서로서 전시기술에 있어 시설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한다. 다섯 번째는 건설부서로서 시설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한다. 전시관 일반관리 업무를 제외한 직원은 공식적으로 80명이다. 한국의 조직구성을 잘 몰라서 당신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전시공간은 중국에서도 독특한 공간이다. 또한 전시관의 운영방식도 기후환경, 정부여건, 그리고 개항기 역사 등으로 인한 중국만의 독특함이 있다. 우리 전시관의 직원들 역시 그것에 걸맞는 superior를 갖고 있다.

<차주영>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나? 또한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초평> 본 전시관은 재정적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건설비용만 정부에서 받았고 운영은 독립적이다. 매년 연간 인건비, 관리, 시설 등의 재산관리에 1,200-1,300만 위안의 운영비용이 든다. 연간 재정은 수지균형이 잘 맞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를 맞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유광흠> 관람객의 내외국인 비율은?



<초평> 2006년부터 외국인 관람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8% 이상이 외국인이다. 공식적으로 외국인 fair reception을 두고 있으며 외국의 정부관리나 의원들이 100여 회 이상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다녀갔다.

<유광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초평> 베이징시는 교류협력의 기지로 유명한 도시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하여 시당국은 도시계획과 미래 도시 발전상에 대한 전시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올림픽에 의한 방문객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 전시관은 북경의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다. 국제적인 도시계획과 건설관련 기관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세미나, 회의 등 교류를 통해 도시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존 등에 대해서 서로 상호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시관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계획 전시관으로서 선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 및 디자인에 대한 기획전시들을 하고 있으며, 예술, 건축,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또, 여러 큰 이벤트들도 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04 크리스 마스에 베이징에 있는 외국인 대사관을 초청하여 전시관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나눴다. 크리스마스 대연회였다.

우리는 외국대사관들과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협력활동들은 모두 우리 전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006년 1월 중국 외무부는 외국 언론인들을 모아 교류하는 기회를 여기 전시관에서 갖었다. 이 연회 후에 외국여행사들이 우리 전시관을 방문하는 도시계획과 건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많은 official army, 연구기관 등과 서로의 profile을 교환하고 교류하고 있다.

북경은 역사문화보존으로 독보적인 도시이다. 개발과 보존의 충돌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세미나 국제회의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전시와 회의 등 후에 각국 참석자들은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전시관에 대한 홍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문객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전시관의 활동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중국과 북경을 알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유광흠> 전시관의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초평> 처음에는 정부는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후 비즈니스 플라자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1억2천 위안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투자하여 모두 합쳐서 2억 위안이 소요되었다. 정부는 5,000m<sup>2</sup>규모의 올림픽 파크내에 올림픽 콘텐츠의 하나로서 일시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다. 여러 이벤트의 성공과 관심 증폭으로 정부는 영구적인 계획전시관으로 확대 건설하였다.

<유광흠> 상해의 전시관하고 차이점이나 연관관계는 있는가?

<초평> 북경과 상해의 전시관과는 관계가 없다. 둘다 독립적인 도시의 전시관이다. 상해의 전시관은 상해시의 도시계획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은 5억 위안이다.

<유광흠> 규모는 어디가 더 큰가?

<초평> 상해가 더 크다. 그러나 정보나 전시의 양은 북경이 더 많다. 북경은 풍부한 문화적인 유산이 더 많다. 이런 이유로 외국관광객들도 우리전시관을 방문하고 또 이는 당신들이 우리 전시관을 방문한 이유와 같다. 여기는 국제적인 통역과 협력이 가능하며 훨씬 인기가 있다.

<차주영> 처음 시작이 올림픽 전시관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영구적인 전시관으로 바뀌었나?

<초평> 1년간 올림픽 전시관으로 운영했다. 그 기간동안 인테리어 디자인에 집중하였으며, 그곳은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곳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차주영> 주 관람객이 처음과 변화가 있나?

<초평> 처음에는 베이징 시민들이 주 관람객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람이 증가하고 있다. 북경의 도시 상황과 미래의 계획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국제방문자들에게 이 전시관은 매력적이다. 이제는 주로 외국인 관람객 그것도 고위층의 정부인사들이 많이 찾고 있다.

<차주영> 전시관장님이 건축분야를 전공한 사람인지 행정쪽인지 알고 싶다.

<초평> 치프 큐레이터는 부시장이며 도시전공자이다. 3명의 큐레이터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이 북경시 도시계획국 소속의 정부스텝이다. 그래서 우리 전시관은 진짜 도시계획전시관이다. 북경의 도시계획영역의 규모는 매우 크며, 건설 영역 또한 어느 유럽국가 보다는 크다.

<유광흠> 건설비 중에서 민간투자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투자했나?

<초평> 예를 들자면 고래의 뱃속을 형상화한 이 회의실 같은 경우도 큰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투자해서 만들었다. 개관이후 점점 외국의 공식적인 방문이 많아져서 리셉션 디파트먼트도 만들었다.

<차주영> 혹시 교육프로그램은 있는가?

<초평>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주 하루는 초중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초중생들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유광흠> 아카이브 관리 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인가?

<초평> 전시에 대한 문서자료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정보, 매뉴얼 등을 관리한다.

<유광흠> 외국의 유사기관 혹은 중국내 기관과 협력하고 있나?

<초평> 현재 2개의 외국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준비위원회와 협력하여 내년 9월 쯤에 기획전시를 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 왕립공사인 B.C. Pavilion Corporation<sup>1)</sup> (British Columbia Pavilion Corporation)에서 담당할 것이다.

다른 협력기관은 로잔의 올림픽 파빌리온 (스위스)으로 이들은 2008년 2월에서 10월까지 올림픽 게임에 대한 전시를 할 예정이다.

그밖에 워싱턴에서 온 사람들이 북경 도시계획전시관은 최고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워싱턴 시장은 두 번이나 왔었고, 로라부시 영부인도 작년에 왔었다.

<성은영> 해외나 선진 사례 중 전시모델이 된 전시관이 있는가?

<초평> 없다. 주지하다시피 베이징시 도시계획국은 처음에 매우 작은 전시관을 계획했다. 부동산 및 건설 부흥을 위한 홍보관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유광흠> 오늘 말씀 감사하다. 우리도 출장후에 보고서나 뉴스레터등을 통해 홍보하겠다. 우리연구소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전시관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도 고려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여 북경전시관에 대해 소개 등 컨퍼런스에 참여 가능할까?

<초평> 기회가 된다면 세미나나 회의 등에 참여 하겠다.

<유광흠> 일단 전시를 보겠다. 긴시간동안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초평> 한국의 전시관을 건설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해 주겠다.

---

1) B.C. Pavilion Corporation is a Crown Corporation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Originally created to manage the BC Pavilion during Expo 86, 'PavCo' Operates BC Place Stadium, The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and the Bridge Film Studios.



#### 4.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

##### ☐ 방문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5일 14:00
- 장소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5인
  - 쑤 관썩(Xu Quansheng\_제4분소장, 선전지점장), 쑤 덩썩(Zhou Dingqing), 유광흙,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주요내용

-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의 조직 구성 및 업무 영역
- 중국의 건축설계 및 건설 프로세스

##### ☐ 회의록

<차주영> 중국에서 도시건축설계를 하는 친구를 통해 본 연구원을 알게 되었다. 우리 auri는 건축도시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 도시설계, 조경 연구를 한다. 국토 도시 쪽, 건설기술 쪽으로는 오래된 연구기관이 있으나 건축도시 설계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이 없어서 설립이 되었다.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비슷한 여건인 중국은 어떤 식으로 건축도시공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 오게 되었다.

우선 연구원에서 목적, 업무분야,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

<서> 이름에서 보면 우리 연구원과 귀연구소는 영어 이름을 비슷하나 우리는 설계 디자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나?



<유광흠> 우리는 연구가 주 업무인데 정책과 제도를 연구한다.

<서> 우리 연구원은 1949년에 설립되어 약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국가 소유의 건축회사이다. 일하는 직원은 2,200명인데 재작년에는 1,200명이었으므로 최근 더 많이 성장되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 임무는 건축디자인, 도시설계, 조경 및 실내 인테리어도 포함되어 있다.

<유광흠> 주선생님은 엔지니어로 되어 있는데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계 있는가?

<주> 그렇다.

<서> 우리 연구원은 10개 분소로 나누어 있다. 나는 제4분소장으로 우리 분소에는 200여명이 속해 있다. 디자인 분소는 총 22개가 있다. 설계분야 외의 조직은 재정, 인력, 마케팅, 과학기술, 정책전략, 행정지원, 정보로 나뉘어 있다. 또, 우리 연구원에는 국민 연구소 분소도 있고 상해와 연락사무소도 있다. 우리 건축, 전력, 프로젝트 운용 그리고 다른 공사 시공에 대한 20개 정도의 자회사도 있다.

<유광흠> (조직도를 가리키며)실제 공사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서> 그렇다.

<차주영> 그럼 여기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다는 이야기인가?

<서> 아니다. 23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우린 설계만 하고 그 회사들 중 일부는 시공도 한다. 기능적인 부서들도 있다.

<유광흠> 디자인소와 디자인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서> 디자인소는 옛날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온 연구소이고 디자인실은 디자인 대가 중심으로 일하는 아틀리에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차주영> 제4분소의 200명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



<서> 200여명의 건축설계와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있다. 12개의 스튜디오는 5개의 건축설계스튜디오, 2개의 구조설계스튜디오, 3개의 시설설비스튜디오, 1개의 전기부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1개의 스튜디오에는 50여명이 있다.

<차주영> 그럼 각실은 경쟁적 수주체계인가?

<서> 같은 마켓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쟁적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쟁에 있어 3개가 제일 뛰어나고 나머지들은 서로 경쟁한다.

<차주영> 경쟁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양산한다는 이야기 인가?

<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

<차주영> 국책기관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서> 중국에서 우리는 건축분야 최고이자 최대조직이다. 또한 경험이 많고 재정이 튼튼하여 신뢰를 받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유광흠> 공정설계실은 무엇인가?

<서> 역시 같은 기능의 자회사이다.

<차주영> 여기서 법규나 기준에 관련된 연구도 하나?

<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설계할 순 없으나 기준, 표준을 정하는 기초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차주영> 관에서 발주하는 일만 하는가?

<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프로젝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유광흠>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관한 일들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서> 경쟁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유광흠>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서> 정부에 제안서를 내고 경쟁해서 수주한다. 한국의 경쟁입찰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할 때 회사에게서 개념설계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택한다.

<유광흠>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평가기준에 가격이나 설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 설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비중은 어떠한가?

<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정적이진 않다.

<유광흠> 우리 경우 연구용역은 주로 학교 등의 연구기관에 주게 되는데 중국은 어떠한가?

<서> 중국에서 디자인 전문가의 그룹이 있다. 교수도 있고 회사에서 잘하는 설계사도 있고 큰 프로젝트를 할때 외국에서 대가를 초청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차주영> 현상설계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있을 텐데 누가 연구를 제시를 하는가?

<주> 우리 연구원에 대해 알고 싶은가? 디자인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싶은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혼란스럽다.

<차주영> 아마 우리 연구소와 당신 연구원이 이름이 비슷하여 야기된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디자인은 하지 않고 연구만 한다. 우리는 민간 설계사무소가 아니다. 우리의 연구분야는 기준이나 정책 마련에 관한 건축이나 도시설계의 기초적인 연구이다. 그래서 우리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서> 우린 연구부분은 매우 적다. 특히 3년 전부터 우리는 올림픽준비로 인해 많은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주> 연구부분은 대부분은 구조에 관한 것이다.

<차주영> 공간계획에 대한 체계가 20년 전에 변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건축정책은 누가 추진하는가?

<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국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주로 시당국에서 추진한다. 우리연구원은 단지 많은 유명한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차주영>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 인가?

<서> 그렇다.

<차주영> 연구원 웹사이트를 봤는데 건축가들과 많은 협력업무가 있는 것 같았다.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가?

<서> 그렇다.

<유광흠> 예를 들면 북경국제공항 설계공모시 노만포스터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 안을 연구원에서 협력을 하는 형태인가?

<서> 그런 셈이다. 그는 1등 당선자이고 우리는 그것의 실시설계 및 시공을 추진했다.

<유광흠> 중국이외의 해외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는가?

<서>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하지는 않지만 중국대사관이나 중국외 국가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원하기도 한다.

<차주영> 외국의 경우 외국회사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가능한데 중국도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가?

<서> 중국은 WTO에 가입 후 차츰 개방되고 있다. 앞으로는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라 볼 수 있다.

<유광흠> 한국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주> 우리도 아마 그런 식이 될 것이다.



<유광흠> 한국의 경우 설계시장 개방보다 건설시공분야가 먼저 개방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이미 외국건설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서> 중국의 경우 큰 시공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들어오기 힘들다.

<유광흠> 자회사중 PM회사가 있는데 뭐하는 회사인가?

<서>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빌딩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지식이 없는 경우 다른 회사에 맡겨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이다.

<차주영> 부동산 관련 회사도 가지고 있는가?

<서> 하나 있다. 이 건물도 회사에 속한 부동산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다.

<차주영> 경쟁할 만한 회사가 2개 더 있다고 했는데...

<서> 정부건축설계원, 상하이 현대그룹이 있다.

<차주영> 모두 국영인가?

<서> 다 국영이고 체제도 비슷하다. 규모는 상하이가 더 크다.

<차주영> 혹시 우리 연구소와 성격이 비슷한 연구소가 있는지?

<서> 도시계획과 건축 부분이 따로 있고, 도시계획분야는 국책도시계획 연구소가 있고 많은 건축관계기관들이 있다.

<유광흠> 혹시 개발이 특화된 다른 국영기업도 있는가?

<서> 설계부분의 국영기업도 많지 않다. 아까 말한 부동산회사가 있다. 수도개발그룹, 근목이라는 회사도 있다.

<차주영> 오늘 정말 많은 질문에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업무 분야가 달라서 질문이 명확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것을 알고 간다. 감사하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하여 중국의 설계 디자인 질이 많이 높아 이번 출장에도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찾은 목적이 달라서 그 부분을 많이 묻지 못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기회에 다시 찾아 묻고 싶다.

## 5. URA(Urban Regeneration Authority)

### ☐ 방문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28일 10:00
- 장소 : URA 회의실
- 참석자 : 8인
  - Zukiflee Mohd Zaki(보존 및 도시설계부 팀장), Tan Sze Hui Elaine 외 1인 , 유광흠, 차주영, 성은영(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통역 1인

### ☐ 주요내용

- URA는 싱가포르의 국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도에 설립된 조직임
  - 질적인 개발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사전에 차단
  - 전국을 55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발지침 계획을 수립 · 개발
- URA의 조직 구성 및 업무 현황
  - 국유지 장기임대 공개입찰 업무와 임대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임
  - URA은 개발규제, 협력개발, 토지총괄, 계획, 보존과 도시설계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중 400여명이 건축가, 도시계획가, 엔지니어임
- 싱가포르의 도시 및 건축계획 체계



- 건축허가 : 계획승인서를 ura에 제출하면 ura에서 계획서를 허가하면  
기관인 BCA (Building Control Authority)에서 최종 건축허가
- 건축미관심의 : 건축물미관심의 기구인 ADP (Architectural Design  
Panel)에서 총괄
- 도시계획체계
  - concept plan(capacity plan , landuse & transportaion)
  - master plan : DGP(Development Guide Plan) 155개 지역 총괄계획으로서  
매 5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며 공공공간의 정의도 이 계획에서 함
  - conservation guideline
  - UDG(Urban Design Guideline)
  - Envelop Control Plan; 특화기구
  - Identify Plan
  - 민·관 협력 -> 토지매각 & 개발
- 계획 참여 기관
  - URA : development plan
  - BCA : approaching building plan
  - NP : national park
  - HDB : housing development borad
- 인구현재 420만 -> 600만으로 증가
- AUDE : Architecture Urban Design Exellency
- 건폐율에 대한 규제
  - 일부 주거지역에만, 40~50%
  - 공공공간 확보를 위해 -> Development
- City Gallery
  - 전시내용 ; 일반 대중용

- 목적 ; 어린이 대상
- Live - Work Play
- personal view -> 개인적 관심증대
- 모형 - 1:500 identify plan -> 지역 정체성
- 관리인원은 10명 이하임
- Urban design guide line : 보존지구 3개 지구 (conservation area)에 따라  
내용이 다름, 계획 & 고유기능